

존 오스왈트 박사, 열왕기, 19회기, 3부

열왕기하 5-6장, 3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제 6장, 8절부터 2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Opened Eyes"라고 정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 누구도 많이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멋진 이야기입니다. 시리아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침략군을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그는 그의 지휘관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나는 나아만도 그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 이야기들은 아마도 연대순이 아닐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들이 생각의 순서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지휘관들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요, 당신들 중 누가 스파이인가요? 분명히 너희 중 한 사람은 내가 다음 공격대를 보낼 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안돼, 안돼, 안돼, 안돼라고 말해요.

그의 종 중 하나인 나아만(Naaman)? 아니, 주님.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 전에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선지자. 그가 응답합니다. 좋아, 거기 가서 그를 잡아라.

응, 응, 응, 응, 응. 당신이 생각하기 전에 그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그는 당신이 그를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우리 눈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는 도단(Dothan)에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기억하라 이스라엘 골짜기는 너희 관점에서 보면 지중해에서 남동쪽으로 바산과 요단 골짜기로 뻗어 있는 땅의 북쪽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은 그 골짜기의 남쪽 어깨에 있고 그 남쪽에는 사마리아로 향하는 길에 도단성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시리아 군대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지나 그 골짜기 가장자리를 넘어 도단 평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크게 어려운 공략은 아닙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말과 병거와 큰 군대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진정해, 우리가 그를 잡았어. 그런데 흥미롭게도 엘리사의 종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게하시요?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그것은 천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게하시가 나병 때문에 격리되어 있었던 것인지, 이 사람도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아, 실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종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엘리사에 관해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그것을 계속 언급할 것입니다.

엘리아와 엘리사라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벤하닷의 지휘관 중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선지자라 부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겠지만 성경은 정기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그의 직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의 직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 보니 군대가 말과 병거를 에워쌌더라.

아마도 그들은 수념 여인이 그들에게 방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집 지붕 꼭대기에 있는 방에 있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상상한다. 그는 아침에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오더니 거기에 있었다.

아아, 주인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그들과 함께한 이들보다 더 많습니다.

아, 평소보다 더 확고하게 믿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대항하는 세력에 의해 얼마나 쉽게 겁을 먹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맙소사, 맙소사, Reds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좌파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뭐할까? 우리는 국회의사당 건물을 습격해야 합니다.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거 부스에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이 멀다, 눈이 멀다.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했습니다. “주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시리아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사실은 당신이 졌네요. 오 친구들, 제가 나이가 들수록 저는 사람들이 제가 정말 천국을 고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내 생각엔 그래, 어서 나에게 휴식을 줘.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나는 보고 싶다, 나는 하늘의 군대를 보고 싶다. 그들은 우리 주변, 내 주변에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프랭크 페레티(Frank Peretti)라는 사람이 많은 주목을 받은 소설을 썼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실제로 결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오, 그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고 그 확신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을 쳐서 눈을 멀게 하라고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군대 전체가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처럼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길이 아니며 이 도시가 아니니라. 여러분은 잘못 인도되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네가 찾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길을 따라 10마일쯤 되는 사마리아로 인도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자마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매 그들이 보니 사마리아 가운데 있었더라.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결국 눈멀게 된 곳을 보십시오. 그분의 신성한 능력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상황의 절망적인 현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우리가 얼마나 궁핍한지, 당신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것을 뒤집나요?

글쎄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만들 예정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별거벗고 무기력하며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사진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내가 그들을 다 죽이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엘리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들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전쟁에서 그들을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이다. 그것은 신이다.

이사야 6장에서처럼 그분은 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나요? 그 사람은 왜 우리 눈을 뜨는 걸까요? 아,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벌레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썩었는지.

아니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 보여 주십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 주인에게로 갈 수 있도록 그들 앞에는 정해진 빵과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위해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맙소사. 하느님, 나는 당신의 적입니다. 나는 그 아이를 안다.

맞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편 23편입니다. 그들이 취한 후에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시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 습격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냈습니다.

네, 주님. 눈을 뜨세요. 자, 내가 여러분을 보내기 전에, 정말 예리한 분들은 아합이 아람 왕 벤하닷을 놓아주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를 죽였어야 했습니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인 것은 네가 그를 죽이려 함이니라 자, 잠깐만요.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차이점은 벤하닷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던 싸움이었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대적의 역할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같은 종류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무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이곳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포로가 아닙니다.

원하신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겨 없애고 없애버리라고 하신 원수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을 떴다. 식별.

지혜.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눈을 떴다.

우리가 그걸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